



# 선을 취하지도 않는 것

길을 잘못 찾고,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난무하지만 성성직적이 안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위험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적만으로도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심신을 편안케 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매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적만으로는 산란한 마음을 일부 정을 수 있지만, 완전하게 끊지는 못하고 지혜는 뒤지 못하므로 다시 매(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한다면서 염화두(念話頭나 송화두(誦話頭나 하며, 간화선 처음 단계 수행과정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염화두나 송화두를 해도 적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상태를 공부의 경지로 착각하여 견처(見處나 깨달음으로 오인해 공부 길을 잘못 들 수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사이 참선하는 사람 가운데는 급한 마음에, 선을 지도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스님이나 재가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화두를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을 뒤적이며 혼자서 기본 내키는 대로 읽어보고 다리를 모고고 앉아 좌선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못 박을 때 못을 잘못 박았다가 뽑아서 다시 박아도 먼지 박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한번 잘못되면 고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교와 참선은 '일생일대의 생사고'란 과제의 해결을 동기로 출발해야 합니다.

### 기자가 본 대호 스님



대호 스님은 1976년부터 28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다.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기부터 재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도해 온 스님은 4박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참선수행을 초보자에서부터 계층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 지도한다.

특히 스님은 토론을 통한 문답식 법문으로 수행자 위주의 알기 쉬운 법문과 일대일식 점검, 독참(개인점검)으로 접근한다. 즉 수련생이 문답을 통해 스스로 기본적인 명목식 삼매체 경험하도록 해 '직관(直觀)

### 1976년 부터 매년 삼매체험 선수련회

#### 문답식 법문, 안상에 수련원 건립 중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 직관 수행이란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상관없이 곧바로 마음에서 보고, 듣고, 활동하며, 밝고 맑은 자리를 수용해, 당처(當處)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수행이며 삶이다.

몇 년 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 일약 2만5천 평을 기증받은 스님은 현재 수련원 설립을 위한 터 닦기 공사를 하고 있다. 스님은 "수행이란 인위적인 뒤음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오로지 진취적이고도 간결한 법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문경 김룡사에서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해인사 등 제법선원에서 정진했고, 현재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설명하시는 스님.

## 수행자의 큰 적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물 왜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어 가면서 동기가 이런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기가 출발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은 고지려고 하지 않고 참선이나 수행 기술을 익히려 듭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참선은 진전도 없고 흥미도 떨어지며, 그러다 보면 마치 못해 형식적, 직업적으로 흐르고 수단이 되고 맙니다.

동기가 불순하거나 미약하면 수행을 위한 수행이 되어 버립니다. 형식과 겉치레로 흘러 수행이 살아있는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수행자는 수행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구계 받고 주자가 될 수 있고, 지위나 품위 유지나 세속적으로 보면 출세에 한몫을 할 수도 있었지요.

참선 수행자들의 장애가 되는 가장 무서운 적(敵)은 이기주의입니다. 수행의 출발이 자기 개인의 문제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다보니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처럼 어렵고, 수행에 장애를 만듭니다. 수행이 탄탄해지기 어렵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사물을 왜곡되게 봅니다.

감정에 지우쳐 있거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일 때, 욕구에서 못 벗어나는 하근기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순화되고, 공과 사물 판단함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열린 사고(思考)를 할 때는 근기가 수승(殊勝)한 상태가 되겠지요. 하근기는 염불이나 주력을 하고 상근기는 참선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염불, 주력은 적적(寂寂) 일변도로 빠지기 쉽고 사고가 경직되며 집착하기 쉽습니다. 좀더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을 벗어나서 염불도 주력도 있을 수 없으니 염불 주력을 하더라도 집착하여 매달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참선수행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성성직적의 공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과 일상의 활동까지 궁극적으로는 일생일대의 생사고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 속에서 일도 하고 활동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만 기자



성전스님의

### 스님이야기

승원 스님

나는 월정사에서 자주 간다. 전나무 숲길과 유장한 계곡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승원 스님이 있기 때문이다. 키가 훗날하고 인물 또한 배우 뺨치는 그의 외모는 말리셔도 금방 눈에 띈다. 일주문을 들어 서면 도량에서 쉽게 그를 만날 수 있다. 항상 불사를 감동하느라 방에 있는 시간 보다는 도량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승원 스님" 하고 부르면 그는 인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 입가를 귀에 걸고 아주 멋진 웃음으로 반겨준다. 그의 웃음을 보며 나는 반가운 도반 하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가를 새삼 느낀다.

승원 스님이 월정사에서 산 지는 10년이 된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만큼 오대산에 산 것이다.



그림·문병성

스님이 월정사에 산 10년 세월 동안 변한 것은 강산만은 아니다. 월정사 도량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불사를 해왔다. 지금 일신되어 있는 월정사는 그의 원력과 발원이 선명하게 배어 있다.

승원 스님은 이제 목수 뺨치는 이문과 눈을 갖고 있다.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집에 소용되는 자재와 비용, 그림과 인력까지도 계산할 만큼 일에 밝아졌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도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야 만다. 어느 날 일자 한 분이 "스님, 이제 건설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스님 앞에서는 공사비를 더 부를 수가 없다며 웃으며 견네던 일자의 말 속에서 승원 스님이 10년 동안 어떤 자세로 불사를 해왔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스님은 불사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자세와 마음으로 해왔다. 도반들과 함께 있다가도 중요한 공사가 있는 날이면 비가 오거나 어둠이 깊은 것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절에 돌아가곤 했다.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스님을 향해 도반 스님들은 그럴 거 뭐 있느냐며 만류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제가 없어도

불사는 해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서서 제 마음을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목수도 인부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것은 제가 소리를 지르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지시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불사를 정말 지극 정성으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우습게 말하자면 제가 불사 현장에 없는 것은 공양주 보살이 마치 올리고 마는 것 하고 똑같아요. 마지는 올리고 염불은 없는 사시기도란 너무 찡찡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월정사를 향해 달려가고는 했다. 그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그가 지난 진실한 삶의 자리에 대해 얘기하며 그런 도반이 있다는 사실을 흐뭇해 했다. 그런 그가 불사를 해서 그런지 월정사에 들어 서면 누구라도 도량이 참으로 조화롭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디 하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벗어난 곳이 없다. 웅장하지

### 10년을 하루같이 가람 불사 몰두

#### 월정사 전나무 같이 '곧은 심지'

만 단아하고 편리하지만 아늑한 도량의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건축에 대해서 빼어난 안목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도량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애정과 진실 없이는 불가능 하다. 애정과 진실 없이는 일의 지속적인 추진 또한 가능할 수 없다. 한 분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심지의 곧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승원 스님은 월정사의 상징인 전나무와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일을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이나 평생시 삶을 통해서 본 그의 모습은 전나무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 스님의 삶의 향기와 곧음은 그가 먼 전생 어느 시간 월정사를 지키고선 전나무 숲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니게 한다. 곧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푸르려 쉬이 변하지 않는 전나무처럼 그는 그렇게 월정사를 지키며 살고 있다.

가끔 나는 스님을 바라보면 목이 아프다. 그가 키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키 보다는 그가 쉬이 타협하지 않는 순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별로 아랑곳 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다. 평가는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스님 일가의 웃음은 오늘도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오늘도 나는 그 순수한 웃음을 만나려 월정사에 간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 부처님 호흡법 참선수행교육 자동단전호흡법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호흡법으로 누구나 쉽게 저절로 배워지고(99%) 간단하게 단번에 알아지고(99%) 저절로 자동으로 단전복식호흡이 되어(99%) 가장 빠른 효과로 모든 수행의 필수조건으로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은 상쾌한 최상의 컨디션 상태로 언제나 깨끗한 자제가 오래오래 유지되며 일체 무리가 없는(99%) 꿈에나 그리던 호흡수련으로 몸과 맘을 닦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최고로 확실한 심신 건강법(100%)입니다.

- ◆ 대상 : 참선, 위빠싸나, 염불, 독경, 행선, 외산, 절, 단전호흡 수행자, 누구나
-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 낮 반 : 1시 ~ 3시
  - 저녁반 : 8시 ~ 9시 30분 수시로 입학가능
- ◆ 수련비용 : 입학비 1만원
- ◆ 수련회비 : 월 3만원
-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핸드폰, 녹음기, 시계, 귀금속 지참 불가)

### 소리산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전화 02)456-4994, 0035 (팩스겸용)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4번출구 앞 50m이망스카구 4층  
\* 자동단전호흡법의 책자가 2004년 정초에 발행될 예정

## 승복법복인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테일 50%  
적상,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마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마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상,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상,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마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상,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마 210,000
6. 굴 덴 : 면100% 적상,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데카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아섬 공영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앗 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 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감동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단순히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한 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역무,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원리 용융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 (대표)  
FAX 02)831-0058 / H · P 011-208-0051

## 춘천 옥매트 흥삼메딕스

오랜경험의 자연치유 전문점 - 미병 · 난치병 모두상담

우리가족 건강 ...

기후, 호흡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구름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최초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육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중추한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함으로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일화하나 : 무를 연골이 달아서 일어시키기  
힘드셨던 80세 할머니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권력활력 되어 보십니다.

관 매 품  
◆ 옥매트 (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서비스 품목  
◆ 척추교정

02-777-0105 헬스테크상사